

2020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지원사업 연계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포럼

부산문화재단 유튜브 공식채널
▶ 컬처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미투에서 성평등까지

부산 문화예술계의 과제와 전망

미투에서 성평등까지

부산 문화예술계의 과제와 전망

2020. 10. 26(월) 14:00 ~ 16:00

부산시의회 대회의실

미투에서 성평등까지

부산 문화예술계의 과제와 전망

포럼 일정

구분	프로그램
[사 회]	변정희(문화정책위원회 성평등문화증진분과장)
[인사말]	김태훈(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발제 1]	부산문화예술계 미투에서 성평등으로 나아가기 송진희(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공동대표)
[발제 2]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이성미(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종합토론]	좌장 : 이지훈(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장) 1. 부산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제안 주유신(영화진흥위원회 성평등위원) 2.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 김부민(행정문화위원회 · 부산시의원) 3. 문화예술계 성평등 조례제정의 필요성 변현숙(변호사 · 부산문화재단 정책위원회 성평등문화증진분과 위원) 4. 부산문화재단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정책 과제 이미연(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

Contents

01. 발제1 <송진희>	6p
02. 발제2 <이성미>	16p
03. 토론1 <주유신>	45p
04. 토론2 <변현숙>	49p
05. 토론3 <이미연>	52p

01.

발제1 <송진희>

부산문화예술계 미투에서 성평등으로 나아가기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송진희

2016년 00계_내_성폭력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



sns 중심으로 고발된 문화예술계 성폭력

- 예술인들의 인권 보호되지 않는 사각지대
- 지역의 폐쇄적인 문화예술계 인맥 구조와 위계질서로 말할 수 없는 분위기

2018년 미투운동으로 확산



지역문화예술계 말할 수 없는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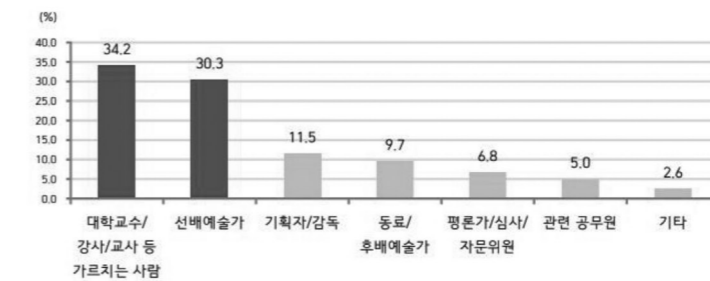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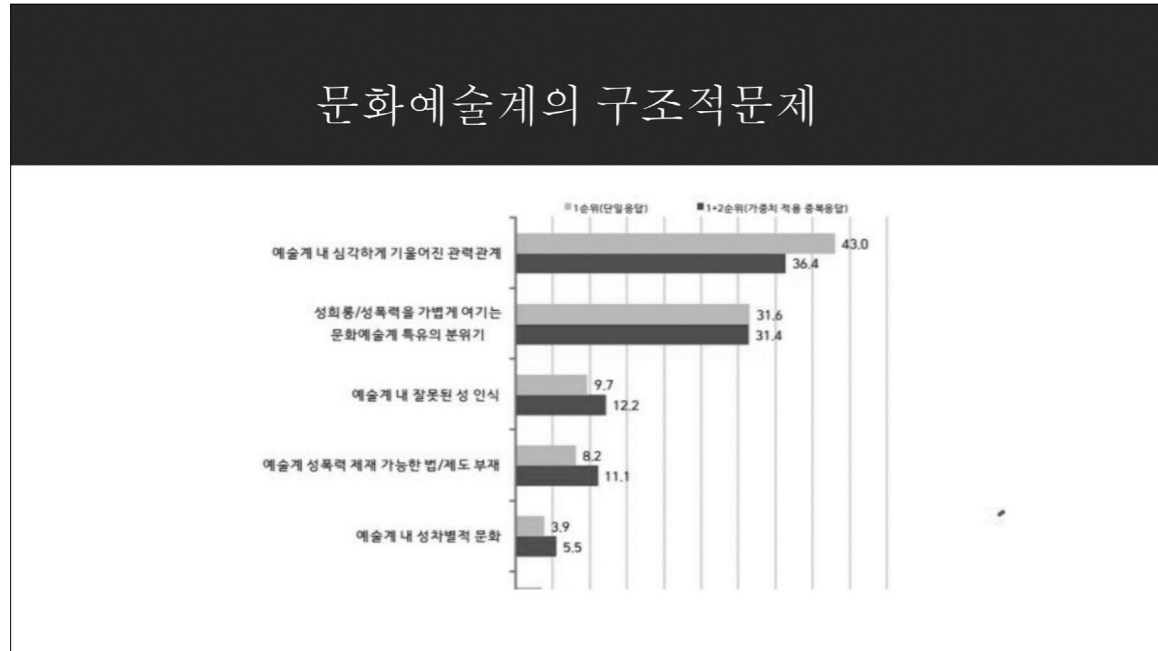
문화예술계의 구조적문제

3.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직위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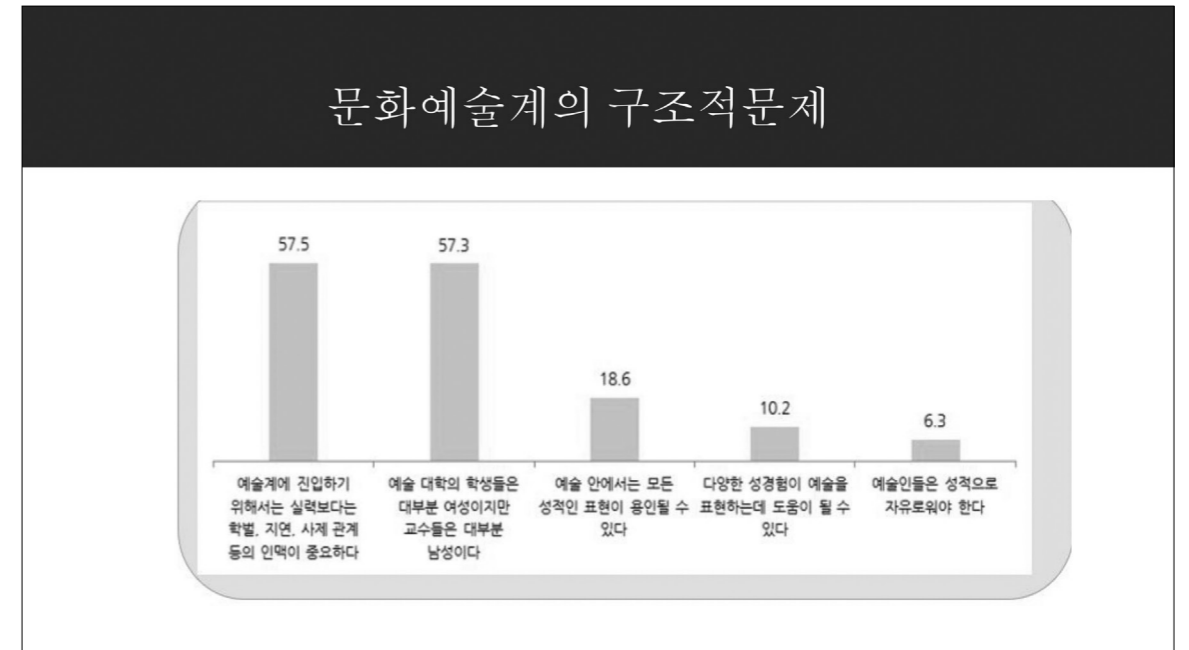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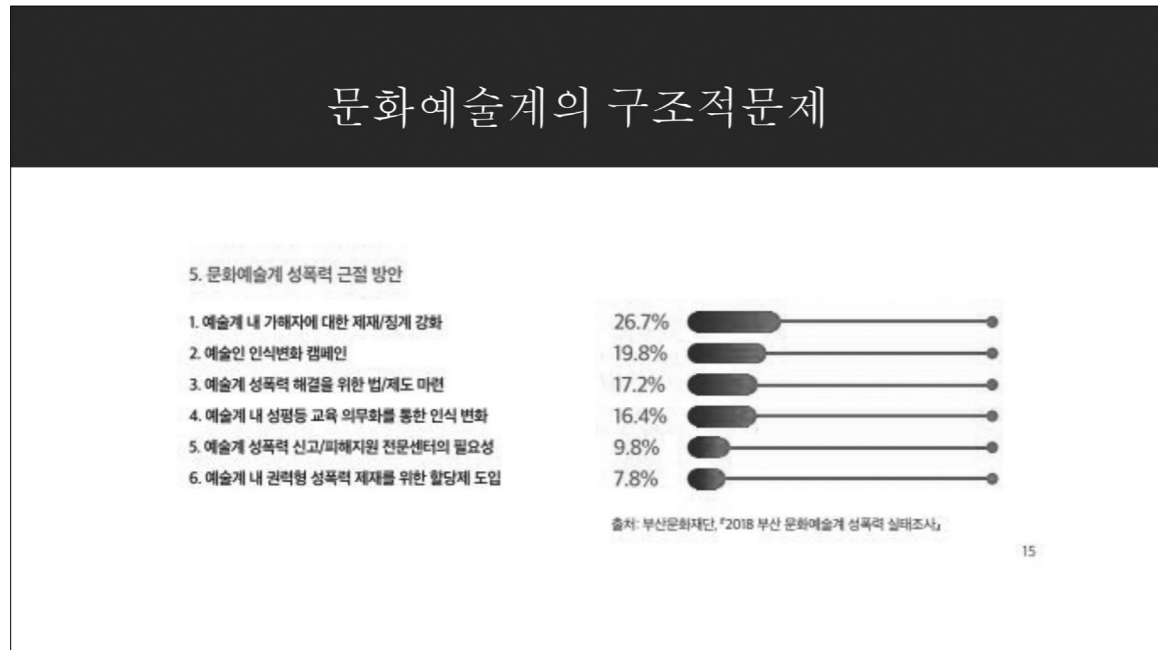
[응답자 수 : 219명, 보기 제시, 중복응답 기준(100% 환산), 단위 : %]





문화예술계의 구조적문제

예술계 프리랜서 72%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특별조사단 권고

-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전담 기구설치
- 예술가의 지위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 공적지원배제
- 성희롱 성폭력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및 보조금 지원시 의무화

1.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부산 문화예술계 대응센터 피해 상담

4개월 임시운영 **1000**회 이상의 상담

부산문화예술계 미투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 대응센터
051-558-8858

대상 문화예술계 종사자, 예술계 예비지방생 및 문화예술계에서 피해를 입은 분

기간 2018년 7월 2일-10월 30일 (4개월)

시간 10시-18시 (월-금)

전화 051-558-8858
온라인신고: 페이스북@BASRCS

내용 상담, 법적, 의료지원, 대응지원

이제 우리가 함께 대응합니다

부산문화예술계 대응센터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워크숍

#00개 내 성폭력 발화운동부터 #MeToo운동까지 피해자들은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문화예술계가 그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예술인의 인권과 안전하게 작업할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예술계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산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성폭력에 반대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상: 문화예술계 반성폭력운동에 관심이 있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강의 경력 3년 이상인 분이나 양평원 성폭력 전문강사인 분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

◆ 모집인원: 20명

◆ 교육일시: 2019.9.23. 13시-18시

◆ 장 소: 시)부산성폭력상담소 교육관

◆ 참가신청: 전화문의
051.558.8858 / 051.558.8833

기타법인(내)성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예술계 대응센터

기록하는 목소리

2019.12.16

문화예술계 me too

소민아트센터 4-6시

시)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예술계 대응센터

예방센터의 현주소

2018년 4개월 임시 운영 후 중단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운영 후 중단
2020년 상반기 운영 후 중단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인권위 "문화예술계 성폭력 등 피해자 구제 전담기구 만들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결과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 2030

의제3 성평등 문화 실현

"성차별 없는 문화정책, 성주류화를 위한 문화정책으로
성평등한 문화실현의 비전을 만들자"

대표 과제

1.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2. 성평등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력신
3. 여성친화적 생태계·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

미투에서 성평등으로 나아가기

목표	추진 방향(안)
평등한 기회	① 문화예술계 생산 통계 전체의 성별 데이터 포함 ② 문화예술계 생태계에 맞는 적극적 고용 및 적극적 참여 개선 ③ 문화예술계 공공/민간 성평등고용 및 임금 공시제 도입 ④ 문화예술계 경력단절 남녀 대상 집중지원
평등한 인권	① 문화예술계 공공 부문 성인지 향상교육 개발 및 컨설팅 운영 ② 문화예술인 성평등교육 실시 ①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②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속
평등한 권력	① 문화예술계 공공기관, 단체, 위원회의 여성대표성 제고 ② 문화예술계 민간/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① 문화예술 성평등 옴부즈맨제도 추진 ② 문체부+지역정부 문화예술 공공기관 성평등협력네트워크 구축

02.

발제2 <이성미>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WACA)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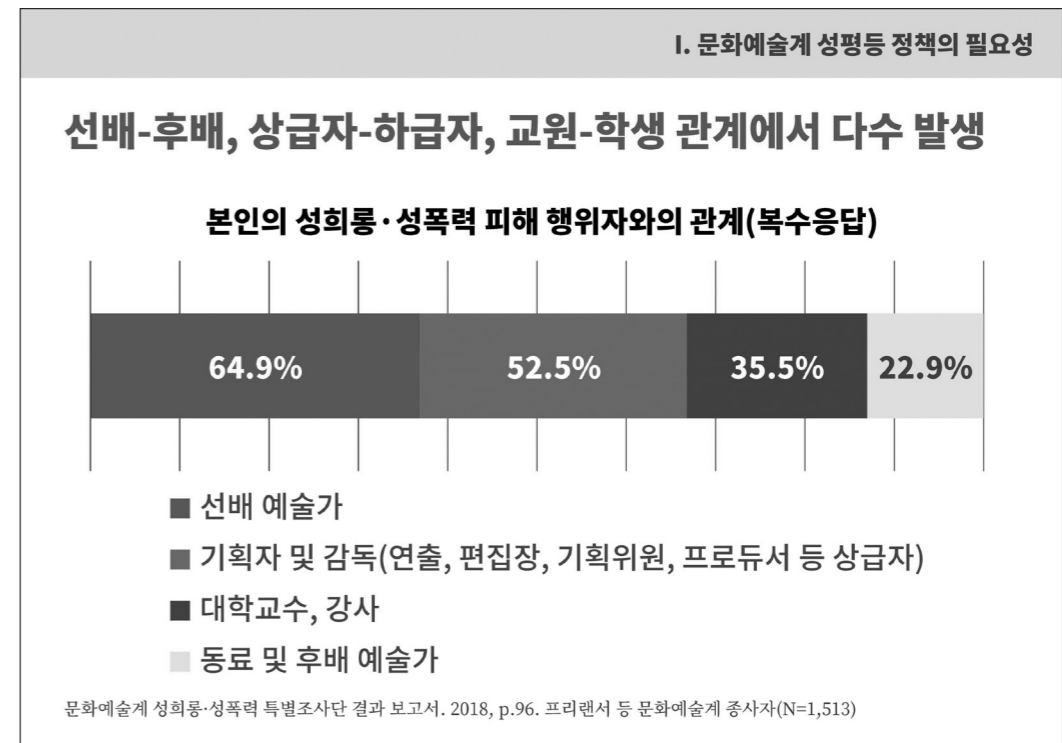
- I.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의 필요성
- II.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 III. 성평등 문화예술 지원정책 해외사례
- IV.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방향

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 I. 문화재단에 성인지 관점이 왜 필요한가
- ##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이 제기한 문제들
1. 예술계 내부의 권력구조 가시화
 2. 해결주체로서 OO계라는 공동체 호출
 3. 프리랜서라는 범 제도적 사각지대
 4. 공공 예술정책의 역할 제시
 5. 문화 콘텐츠 생산자로서 성평등 의식의 중요성

#2016 해시태그 / #2018 미투

메갈리아 미러링 소라넷 폐지운동	강남역 살인사건 페미사이드 여성혐오논쟁 #예술계_내_성폭력	여성문화예술 연합 정책 제안 헐리우드 미투	정부 대책 발표 문화예술계 특별조사단 문체부 대책위	체육계 성폭력 무용계 성폭력 아르코 예술위원 성비 공론화
2015	2016	2017	2018	2019



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가해자는 누구인가? '선배 예술가'

문화예술계 내 우월적 지위
공동체의 신뢰와 권력 획득

피해자의 평판, 예술 활동의 기회, 인력 선발에 영향

거절이나 항의 의사를 표하기 불가능,
피해 경험을 드러내는 적극적 대처가 어려움

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문화예술계:성폭력 방지정책의 사각지대

- 성폭력 방지정책이 정부 및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 조직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프리랜서 비율 70% 이상인 문화예술계는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정책, 성희롱 규제 및 징계제도 등 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
- 예술계 활동방식의 다양함으로 인해 예술계 위력 증명의 어려움
- 문화예술 작품과 콘텐츠를 생산하고 발표, 유통하는 영역으로서 문화예술계 성평등 관점의 중요성

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문체부 성폭력 방지정책 시행 (2018~)

1. 문화예술계 성폭력 성차별 실태조사
2. 예방: 문화예술인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예방교육 의무화, 강사양성, 교육 콘텐츠 개발)
3. 예방: 표준계약서 성폭력 방지조항
4. 예방: 지원사업 참여시 서약서

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문체부 성폭력 방지정책 시행

5. 피해자 지원: 문화예술계 전담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센터 (든든, 보라, 예술인복지재단)
6. 사건해결: 국고지원사업 참여 중단, 심사위원 배제
7. 사건해결: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8. 전담부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직제 신설 (기획조정실)

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성폭력 발생의 원인

성차별적 구조
성차별적 의식과 문화

→

구조적 차별 개선
인식의 변화
조직문화의 개선

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성평등 문화정책의 방향

- 첫째,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성평등 인식 개선과 성평등한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 둘째, 문화예술 콘텐츠, 행사, 사업이 성평등한 관점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성평등문화정책의 문화란?

- 논의 범위

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

군대문화	→	국방부
기업문화		고용노동부
가족문화		여성가족부
학교문화		교육부, 교육청
		경찰청

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성평등문화정책 : 문화분야 성평등정책

문화예술,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 종사자 및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생태계의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정책으로
생산과 향유의 과정 및 결과를 포괄한다.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 한국에서 2002년부터 시작된 ‘성별 영향 평가’, ‘성인지 예산 제도’, ‘성인지 통계 구축’, 정부 및 주요 조직과 위원회 등의 사결정구조에서 성별 대표성 제고
- 정책 시행이 정량적으로 정형화되는 한계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공식 채택
- 모든 정책의 설계, 실행, 평가 과정에 여성과 남성 모두의 관점과 경험을 통합해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인 양성평등을 이루고자 함.
- 제도와 문화의 변화, 조직 재구조화, 자원의 재분배 등 전반적 변화 중시

김양희 외, 기업 내 남녀 관리자의 리더십 비교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0.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 제도와 문화의 변화, 조직 재구조화, 자원의 재분배
→ 남성 중심적 관점으로 구축된 문화예술 조직, 의사결정구조, 평가방식, 예술활동의 구조 등의 재구조화
- 성 주류화 정책으로 젠더 기반 폭력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 성폭력 방지정책을 문화예술계 성평등을 위한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정책 설계 및 평가 필요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의 특수한 조건

1. 예술대학생 등 예비 예술인의 여성 비율 높음
2. 프리랜서라는 활동조건으로 인해 사적,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이 큼
3.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음

참조: 김혜인, 이성민, 문화정책의 성평등관점 정착과 발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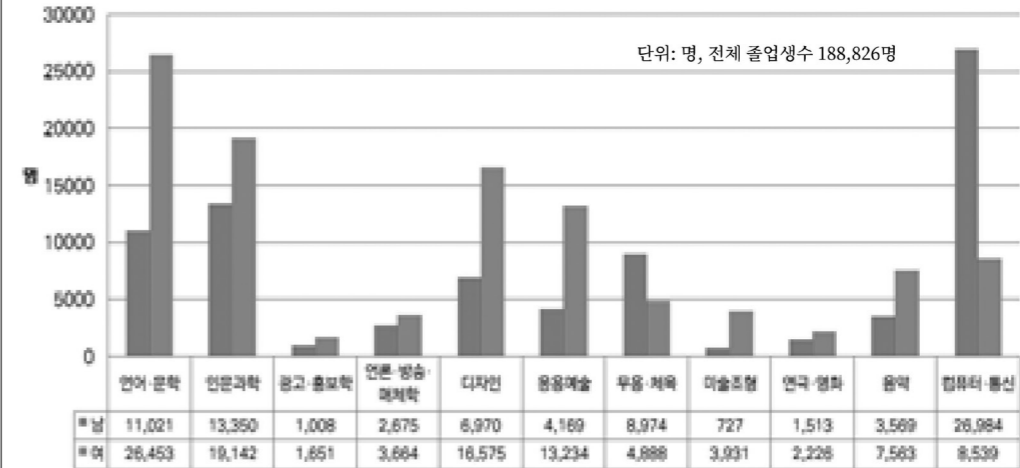
문화예술계 여성의 과소 대표

예술대학생 등 예비 예술인의 여성 비율이 더 높은 데 비해,

- 1) 대학 교원 성비 역전
- 2) 직업적 예술계 진입(데뷔) 성비 및 예술공공지원 선정자 성비 역전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문화예술체육 관련 세부전공별 졸업생 성별 분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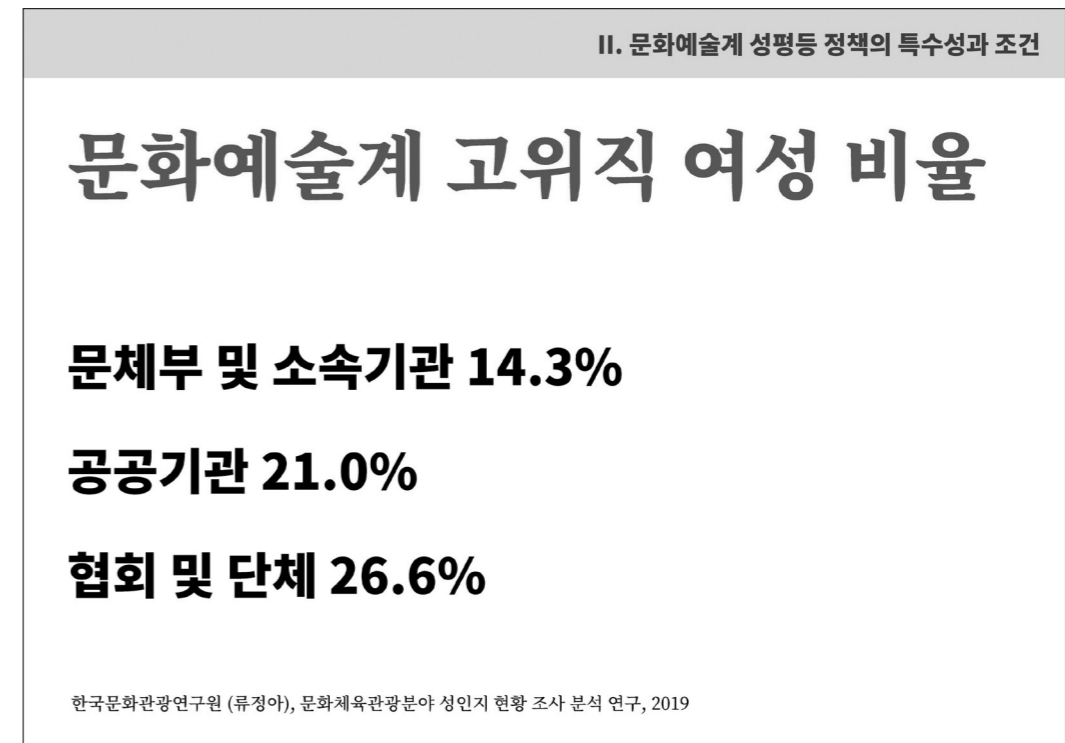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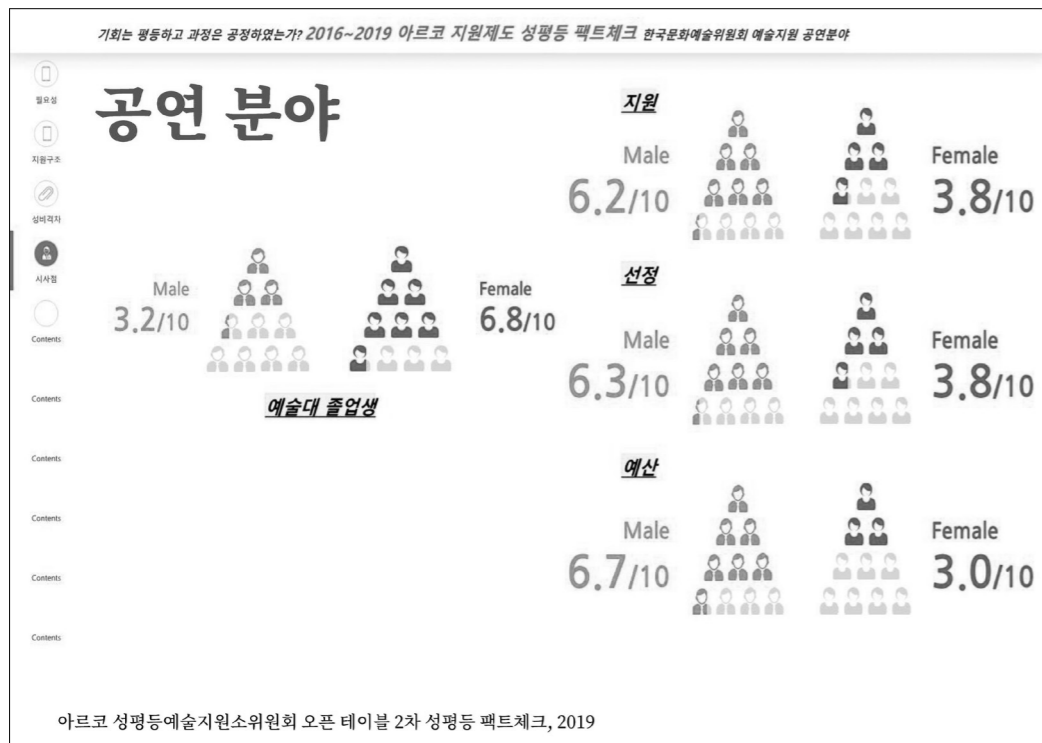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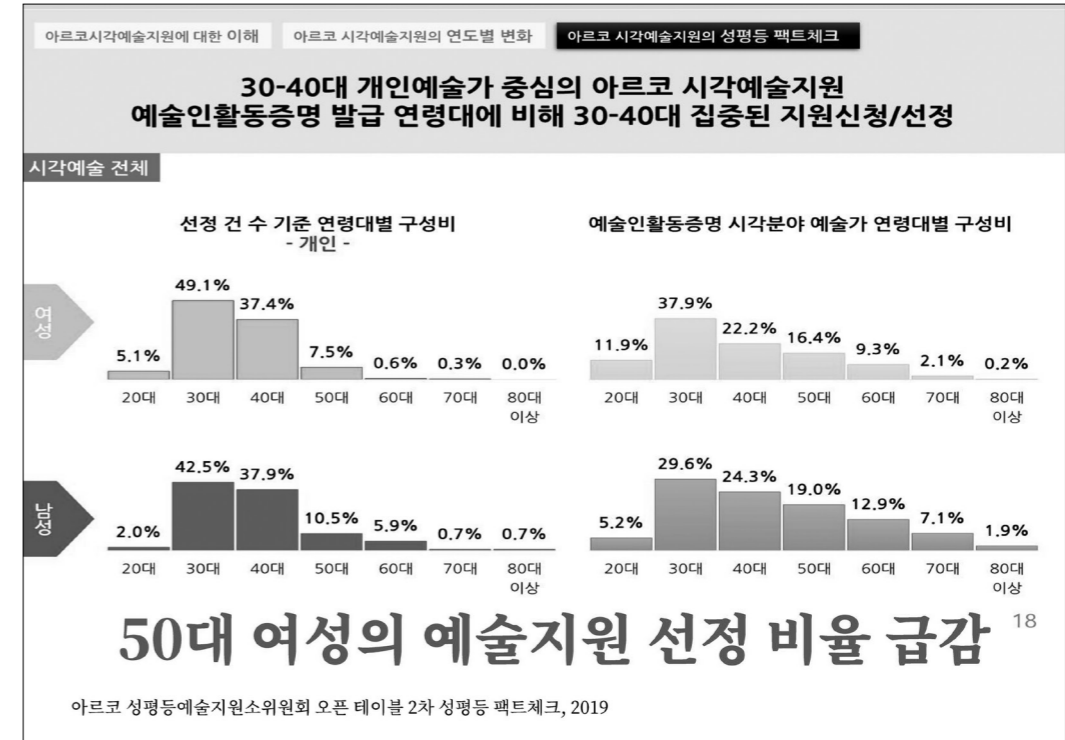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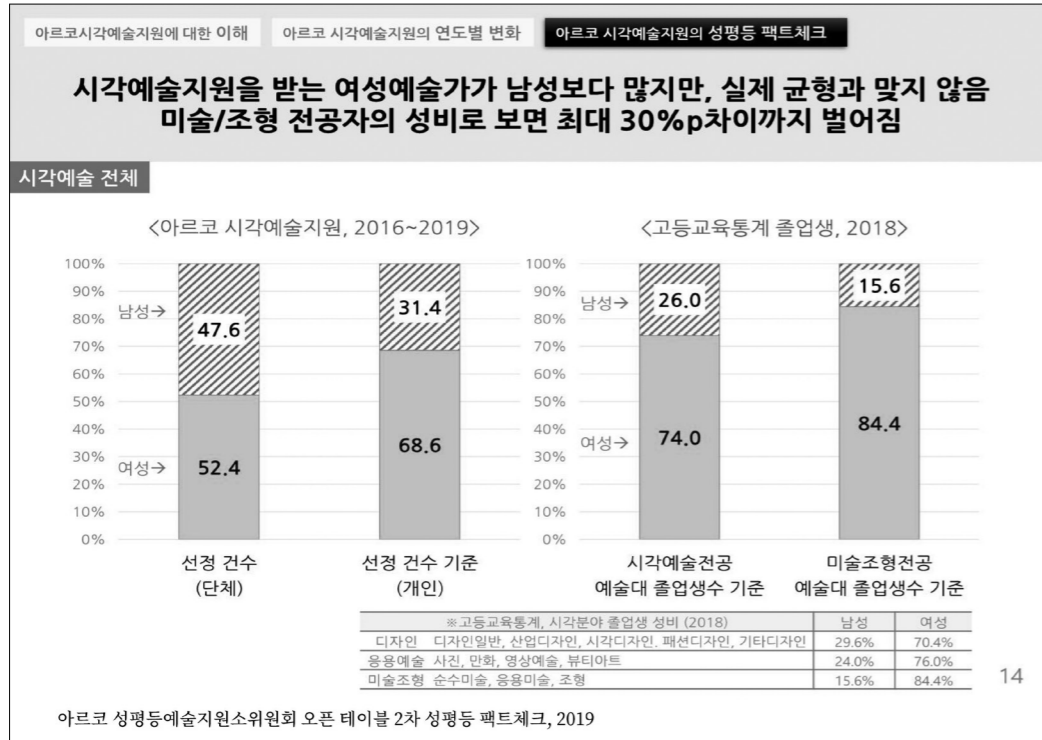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2018). 교육통계서비스 참고 재구성, 『문화체육관광분야 성인지 현황 조사·분석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9에서 재인용.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대학 계열별 성별 전임/비전임별 교원 수 및 비율(2018)

		교원 수 (단위: 명)			성별 비율 (단위:%)	
		전체	남	여	남	여
전체	전임	66,863	51,207	15,656	76.6	23.4
	비전임	81,953	48,481	33,472	59.2	40.8
인문	전임	10,096	6,849	3,247	67.8	32.2
	비전임	16,777	8,406	8,371	50.1	49.9
공학	전임	14,758	13,932	826	94.4	5.6
	비전임	11,108	9,282	1,826	83.6	16.4
의약	전임	13,973	9,601	4,372	68.7	31.3
	비전임	7,942	4,224	3,718	53.2	46.8
예·체능	전임	5,107	3,270	1,837	64.0	36.0
	비전임	16,709	8,073	8,636	48.3	51.7

교육부·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고등교육통계편』, 2018. 자료 재구성, 이미정 외,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여성위원 40% 이상 정부위원회

2013년 26.3%

2017년 66.3%

2018년 75.1%

40% 미달 위원회 133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정아), 문화체육관광분야 성인지 현황 조사 분석 연구, 2019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문화예술계 여성의 대표성 제고 시 고려할 조건

- 1) 경력 단절이 고용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음
- 2) 대학 전임교원의 여성 비율은 낮지만 비전임교원의 비율은 높음. 여성 일자리의 질의 문제.(공공기관 비정규직)
- 3) 정부위원회, 심사위원의 여성위원의 연령 낮음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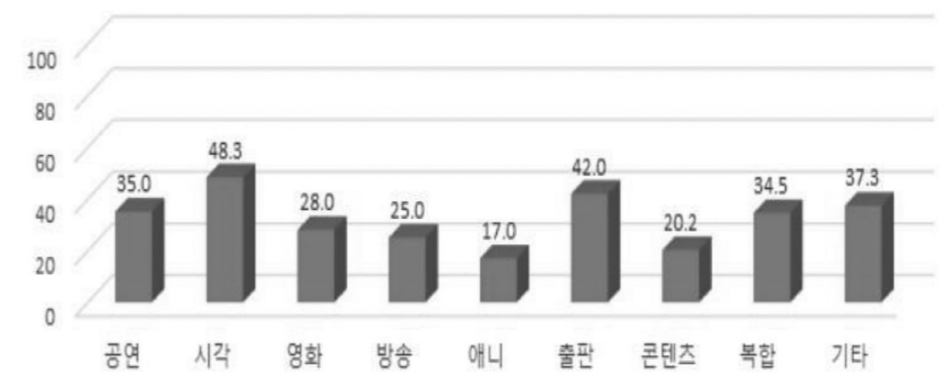
보조사업 심사위원 여성 비율

- 2017년 31.9%
(신진 46.1%, 기존 39.8%)
- 2019년 39.1%
(신진 41.0%, 기존 28.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정아), 문화체육관광분야 성인지 현황 조사 분석 연구, 2019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단위: %)



[그림 58] 2019 지원분야별 여성 심사위원 비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정아), 문화체육관광분야 성인지 현황 조사 분석 연구, 2019, p.184.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문화예술계 의사결정구조의 특성에 따른 성 주류화 전략 필요

- 1) 문화예술계 의사결정권은 어떤 지위와 역할로 구성되는가?
분야별, 영역별 세분화된 지표 필요.
예) 지원사업 심사위원, 무용의 안무가, 연극의 연출가, 관현악단 지휘자 등
- 2)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지표 및 성인지 통계 구축 필요
- 3) 문화예술계 성차별 양상의 특성 파악 (영화현장의 성별 직무 분리 등)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정책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 강화

- 1) 프리랜서 활동방식이 72%를 차지하는 조건
- 2) 문화예술 및 문화콘텐츠 기업 10인 이하 사업장 91.6%
- 3) 공적 의존도 높음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법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 1) 법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시스템 구축
- 2) 공공부문 지원사업 참여 기준 강화
- 3) 민간의 표준계약서(성폭력방지조항 추가) 사용 권장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문화예술과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정체성 :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 1)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정책 : 공공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2) 성평등한 콘텐츠 창작과 비평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성평등교육) 강화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성평등 문화정책의 주요 의제

- 의사 결정권자, 심사위원, 교육직 등의 성별 불평등 해소
-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성인지 비평 및 성평등 콘텐츠 창작 활성화
- 프리랜서 예술인의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한 공정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성폭력 사건해결 시스템 구축)
- 문화분야 성평등 지표 개발 및 성인지 통계자료 구축
- 예비 예술인과 직업적 예술인 정책의 통합적 접근
- 지역 정책 추진과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
- 성평등을 위한 미디어와 언론의 역할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문체부 양성평등정책 사업

- 성평등정책 확산 전국 네트워크 지원 (포럼)
- 성평등 콘텐츠 개발 및 성평등 교육(예방교육) 지원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정책 및 피해자 지원
- 문화체육관광분야 성인지 환경 통계조사 및 성폭력실태조사
- 문체부 위원회 및 본부와 산하 공공기관 여성 비율 제고
- 문화분야 성평등 지표 개발 (연구중)
- 양성평등 문화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중)

I.

III. 성평등 문화예술지원 정책 해외 사례

III. 성평등 문화예술지원 정책 해외 사례

스웨덴 예술기금위원회 Swedish Arts Grants Committee

문화예술 공공지원에서 성평등 적용 원칙과
방법론 가이드라인 제정

김혜인, 이성민, 문화정책의 성평등관점 정착과 발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III. 성평등 문화예술지원 정책 해외 사례

스웨덴 예술기금위원회
Swedish Arts Grants Committee

성 주류화 원칙 적용을 위한 4가지 기준

- 1. 예술적 평가
- 2. 예술 전체, 장르별 성비를 고려한 예술적 평가
- 3. 예술인의 생활과 예술의 질 연관성을 고려한 평가
- 4. 비평적 성별 인식의 질을 고려한 평가

김혜인, 이성민, 문화정책의 성평등관점 정착과 발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III. 성평등 문화예술지원 정책 해외 사례

스웨덴 예술위원회 단체지원금 신청서
Sweden Arts Council

- 단체 대표 및 모든 구성원의 성비, 직급별 성비, 특정 프로젝트 참여 구성원 성비와 역할 명시
- 성평등 및 모든 평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서술
- 프로젝트 및 작업에 성평등에 대한 비평적 관점을 적용한 경우
- 성평등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의 우려가 있는 작품이라고 판단하는지? 그럼에도 지원해야 하는 이유

김혜인, 이성민, 문화정책의 성평등관점 정착과 발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III. 성평등 문화예술지원 정책 해외 사례

스웨덴 예술위원회
Sweden Arts Council (단체 지원)

규정 제3항: 성평등을 포함한 평등 관점을 적용하고 진흥해야 한다.

김혜인, 이성민, 문화정책의 성평등관점 정착과 발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III. 성평등 문화예술지원 정책 해외 사례

스웨덴 예술위원회
Sweden Arts Council

- 음악과 영화 등 성별 격차 현상이 큰 장르의 경우 집중 지원 프로그램 시행
- 작곡가, 지휘자, 음악감독의 여성비율 10% 미만(2004)
→ 집중지원 10년 → 여성 비율 35%로 상향됨

김혜인, 이성민, 문화정책의 성평등관점 정착과 발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III. 성평등 문화예술지원 정책 해외 사례

스웨덴 예술위원회 성평등교육

Sweden Arts Council

- 공공 기금과 보조금을 받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는 성평등 교육 “Green Card” 의무화 논의중

* 성평등 체크리스트

김혜인, 이성민, 문화정책의 성평등관점 정착과 발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III. 성평등 문화예술지원 정책 해외 사례

성평등 프로그램 운영 후 여성 감독, 작가, 프로듀서의 증가비율 스웨덴 영화위원회 Sweden Film Institute

구분	2016~2012년	2013~2016년
감독	29%	49%
작가	38%	44%
프로듀서	37%	54%
합계	35%	49%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김영), 소수자 영화정책 연구: 성평등 영화정책을 중심으로, 영화진흥위원회, 2018, p.63

III. 성평등 문화예술지원 정책 해외 사례

스웨덴 영화위원회

Sweden Film Institute

2011년 여성 영화인 비율 26%

2016년 약 50%로 높아짐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김영), 소수자 영화정책 연구: 성평등 영화정책을 중심으로, 영화진흥위원회, 2018.

III. 성평등 문화예술지원 정책 해외 사례

스웨덴 영화위원회 성평등 프로그램

Sweden Film Institute

1. 여성 영화감독 홍보 웹사이트 구축
2. 경력자 여성감독 5인과 신인 여성감독 10인 매칭 멘토링
3. 펀딩 모니터링
4. 젊은 여성들을 위한 멘토 프로그램 운영 및 영화학교, 영화제 등에서 평등 강화 프로젝트 기획
5. 영화 및 TV 프로듀서 조합과 리서치 프로젝트 진행.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김영), 소수자 영화정책 연구: 성평등 영화정책을 중심으로, 영화진흥위원회, 2018.

IV.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방향

IV.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방향

정책 실행 요건

- 인력
- 예산
- 법률

IV.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방향

통제받지 않는 권력, 지자체

시 의회의 견제 기능 약함

국회 지역구 의원의 역할 미미

지역문화재단의 관리감독 기관 = 지자체

IV.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방향

서울특별시 사례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 서울시 인권조례
-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인권조례 2016년 개정, 인권담당관에 신고)
-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 서울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IV.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방향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범위

시 및 소속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함),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함),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출범, 불교공뉴스, 2016.11.30.

IV.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방향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 법적 제도적 성희롱 예방시스템이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
- 여성사회교육기관 (사)여성사회교육원이 위탁 운영하며 센터장 포함 3팀 10명으로 구성
- 조직문화 컨설팅,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성평등 시민문화 확산사업, 피해 발생시 피해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법률전문가 선임 및 동행 서비스 등 지원

김서현 기자,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 개소, 여성신문, 2020.09.14.

IV.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방향

서울시의 성평등 및 성폭력 근절 제도가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도 적용되는가?

미술계 Y 성희롱 사건의 경우

→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중요
= 지역 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추진주체

IV.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방향

중앙부처와 지역문화재단의 성평등 네트워크 강화

- 문체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지역정책과)
- 아르코의 지역문화재단 참여 사업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IV.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방향

지역문화재단과 지자체의 민관 거버넌스 강화

-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지자체 성평등정책 추진 및 정책 모니터링
- 현장 예술인과 지역문화재단의 성평등 네트워크 강화
- 지역문화재단 이사회의 역할 필요

성평등한 부산 문화예술계를
응원합니다.

03.

토론1 <주유신>

영화 분야에서의 성평등정책 주유신(영산대)

성평등영화정책의 배경

▲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선언

“여성은 창의적 인재로서 자신의 잠재력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경력 지속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는 데 제약을 경험한다...창의성은 성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며, 사회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맥락과 문제 속에 영향을 받는다.”

▲ 여성의 과소 대표성

- 한국 영화산업은 재현과 인력 구성 모두에서 성별이 불평등한 '기울어진 운동장'
- 남성중심적 장르와 서사는 난무하는 반면 관습적인 여성 캐릭터 묘사와 부족한 여성 서사
- 최근 5년간 상업영화 여성 감독 비율 5~10%, 여성 스태프의 실질 임금이 남성 스태프의 40% 수준

▲ 여성 영화인의 경력 단계별 피라미드 구조(남성:여성)

대학 영화과 50:50
 단편 영화 연출 70:30
 독립 혹은 저예산 장편 영화 88:12
 상업영화 95:5

성평등영화정책의 진전

▲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 2018년 3월, '여성영화인모임'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지원으로 설립
- 영화계에 만연한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 상담과 지원
- 현장 영화인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시행 및 성평등 실태 조사

▲ 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회

- 2018년 8월, 영진위 산하에 구성
- 한국 영화산업 내 성평등 기반 조성과 성평등 재현을 위한 한국 영화 지원 정책 개발
- 영진위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성비를 기존의 30% 이상에서 40~50%로 상향
- 영진위 모든 지원작들의 성비 관련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 첫 번째 연구 프로젝트인 '한국영화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출간

50:50 타깃제

▲ 남녀동수제(gender parity)

- 모든 시민은 성별에 상관없이 예술문화를 평등하고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는 문화 민주주의 혹은 문화 다양성에 근거
- 지금까지 예술문화산업이 남성들에게 지나치게 편중되고, 여성 혹은 여성의 이야기는 배제하여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대안
- 타깃제는 쿼터제가 야기하는 게토화나 낙인을 피할 수 있고, 쿼터제보다 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장점

▲ 스웨덴

-2013년 제작 지원에서 남녀 동수 달성
-스크린 재현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결과 소재의 다양성 성취에 노력

▲ '5050 by 2020' 캠페인

-영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프랑스 등 참여
-2020년까지 공적 기금 지원 성비 50:50 달성이 목표
-영국: '다양성 기준'을 통해 여성 50% 뿐만 아니라 소수인종 20%, LGBT 9%, 장애인 7% 지원 의무화

▲ 기회와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다양성 가치 실현

▲ 영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제공

성평등정책의
의미

공정(equity)을 넘어서 평등(equality)으로!

04.

토론2 <변현숙>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 조례의 필요성 변현숙변호사

01. 문화예술계의 특징

문화예술계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성평등정책의 접근의 적용이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계는 타 영역에 비해 분야에 진입 가능한 예비인력(잠재인력)중 여성의 비율이 어떤 타 영역보다 높은 영역이라는 점, 둘째 창의노동이라는 문화예술계 노동의 특수성, 프리랜서 중심의 문화예술인의 직업적 특징은 개인의 커리어형성과정이 사적,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업계의 성 인지정도 및 의사결정구조의 성 균형 정도가 개인의 커리어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한 노동구조를 스테레오 타입화 해온 특수성이 있는 점, 셋째 공공지원금 의존도가 타 사회영역보다 월등히 높은 분야로서 공공지원의 원칙과 결정의 파급이 크데, 이 공공지원의 의사결정주체의 성불균형성이나 공공지원 관련주체들의 젠더 감수성 정도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02. 성평등 조례제정의 필요성

수많은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문화예술계 성폭력 및 성평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은 심각한 수준이고, 때로는 이들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어 피해예술인에 대한 구제에 어려움이 나타난다. 이에 예술인 복지법은 2018. 10. 16.자 개정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마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 또한 기존의 형법이나 성폭력 성폭력특례법을 통해 처벌할 수도 있지만 기존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각종 성희롱, 이로 인한 피해 예술인의 불이익 등은 구제받지 못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현실적인 문화예술계 성폭력 방지 및 피해 예술인의 구제 등을 위하여는 일선에서 법률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가 제정되어 실시된다면 다른 자치단체에도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법률이 재개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조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시책만으로는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고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성평등 조례” 제정의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김혜인, 이상민 < 문화정책의 성평등관점 정착과 발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40~42

03. 다른 지자체의 조례 사례

번호	조례명	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제2항 5호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의2(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제2항 4호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2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계획의 수립) 제2항 3호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4.] 제5조(사업) 제2항 4호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신설 2019. 1. 14.]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4., 2019. 10. 01.>
3	대구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제2항 3호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 제1항 4호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2항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6.>

04. 문화예술계 성평등 조례의 방향

부산에도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복지의 일반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성폭력 및 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규정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 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행위자 공적지원 배제,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태조사, 피해자보호, 2차피해 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써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성평등한 문화예술계 정착을 위한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 조례”의 제정을 바란다.

05.

토론3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정책 과제

이미연(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

01.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발제1과 2에서 제기된 문화예술계 성평등 환경 조성 과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은 어디까지로 규정할 수 있을까? 부산문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주요 역할 중 핵심은 문화예술창작, 학예진흥의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활성화, 지역문화정책 성 확립,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창작활동 기반조성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이다.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 운영, 정책 연구, 콘텐츠 생산과 확장, 지자체 및 시의회와의 거버넌스 강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은 날이 갈 수록 더욱 많은 요구에 직면해있다고 하겠다.

특히 미투에서 성평등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민간과 지역문화재단을 아울러 성평등 문화정책의 필요성 대두, 문화예술계 성평등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 제안, 중앙과 지역의 소통과 연대, 지역재단 내부의 성평등 정책추진을 위한 구조 개선 등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고 부산문화재단 역시 2019년 2월 여성계, 여성 예술인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성평등 문화예술 환경 개선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했다.

당시의 논의는 부산문화재단이 그동안 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 시 운영방식이나 태도에서 미비한 점이 많았다는 것. 앞으로 지역에서 성평등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 문화정책 방향을 적극 반영하고 기반구축, 사업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아래는 재단에서 제안한 2019년 라운드 테이블 자료)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정책 과제와 현황을 짚어보고자 한다.

● 기반·제도 개선

- 문화예술 성평등 위원회 구성(외부 전문가)
- 문화정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 평가지표 개발
- 문화예술 반성폭력 관련 조례 제정 지원
- 심사자문위원 구성 시 여성 비율 일정 할당
- 교부·계약 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따른 서약서 필수 작성
- 성폭력 가해자 처벌 관련 내규 마련

● 사업 운영

- 성평등 문화정책 토론회 개최
-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대응센터 상시 운영 적극 협조
- 성평등 문화 콘텐츠 제작 및 지원
-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 확산 분야별 규칙 제작 지원

● 재단 내부 지원 역량 강화

- 재단 내 성평등 문화정책사업 전담부서 및 담당자 배치
- 기반조성사업·재단 인식개선 간 유기적 결합 방식 필요(유닛 운영 등)
- 직원 젠더감수성 강화 위한 실질적 교육 강화(문화예술계 실태위주)

02. 2020년 부산문화재단 성평등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2019년 제안되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평등 환경 개선을 위한 부산문화재단의 정책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기반·제도 개선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내 외부 전문가 참여 '문화정책위원회 성평등 증진분과' 조직, 변정희 분과장을 중심으로 재단 성평등 정책 이행 관련 논의구조 마련.
- 문화정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 평가지표 개발 관련 정책연구센터에서 장기적으 로 연구 추진, 여성가족개발원 양성평등센터와 연계 평가지표 개발 추진 가능성.
- 문화예술 반성폭력 관련 조례 제정 지원을 위해 시의회와 소통, 구체화 계획 마련.
- 심사자문위원 구성 시 여성 비율은 40% 이상 할당으로 목표치에 거의 근접했으며 하반기 실제 심사위원 성별 비율 데이터를 조사해서 확인해 볼 계획임.
- 성폭력예방 등에 따른 서약서 작성은 진행되고 있고, 가해자 처벌은 가해 사실 확인되면 심의나 선정에서 배제하고 있음.

● 사업 운영

- 2019년 10월 영남권 성평등 정책 토론회 개최, 2010년 현 성평등 문화정책 토론회 개최
-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대응센터 상시 운영 관련 여성가족국 이관 등의 문제로 2020년 상반기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 내 예술인복지지원센터 내에서 지원할 예정임.
- 성평등 문화 콘텐츠 제작 및 지원 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임. 현재 예술활동 증명자 6572명 중 여성 비율이 3764명임(57%).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콘텐츠 제작은 예술지원팀과 문화공유팀에서 함께 노력해야 될 것 으로 보이며, 예술지원 체계 개선 용역을 작년에 추진해 21년부터 반영 예정으로 성평등 관점을 지원사업 체계 내 반영 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 확산 분야별 규칙 제작 지원 관련 현재 문화공유팀의 문화다양성 사업 내에서 연극분야 '세이프온 스테 이지 프로젝트'로 진행 중이며, 11월 말 아시아문화다양성 포럼 커뮤니티 살롱 세션에서 완성된 내용을 공개할 예정임. (21년도에는 무용분야 규약제정 추진 예정)

● 재단 내부 지원 역량 강화

- 정책연구센터에서 성평등 문화정책추진 관련 담당자가 성평등증진 분과와 회의체 구성, 운영 중이며 재단 내부의 성인지감수성 증진, 사업추진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2021년의 추진 과제로 올해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기반구축, 조례 제정 지원을 위한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 여성계가 성폭력예방특별 기구 설치를 통한 부산시의 성폭력과 성주류화 정책 실행체계를 만들려고 노력 중, 이와 연계해서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정책 내용 구체 화,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대응센터의 안정적 운영, 성평등 문화 콘텐츠 제작 및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 등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2020년 문화다양성 공존을 위한 변화 <젠더와 로컬리티>

‘세이프 온 스테이지’ 프로젝트

- **사업명** : 안전하고 평등한 창작환경을 위한 부산 연극계 자치규약
- **대상** : 부산 연극계 종사자
- **사업기간** : 2020. 6~ 11월
- **사업목적** :
 - 부산문화예술계 연극분야 종사자의 안전하고 성평등한 작업환경 마련
 - 부산문화예술계 연극분야 종사자들의 의견과 협력을 통한 자치규약 제작
 - 부산문화예술계 내 성평등인식을 높이고, 예술 공동체의 평등한 문화실천
- **사업진행** :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 **협력단체** : 한국공연예술자치규약(KTS) 워킹그룹, 부산민예총, 부산시립극단, 소극장협의회 및 극단 맥 외 10여개 부산극단 관계자
- **진행내용**
 - 1) 부산연극분야 자치규약 제작을 위한 사전조사 및 연구(6월)
 - 연극계 중심으로 제작된 국내, 국외 CTS 자료 분석 및 사례연구
 - 부산문화예술계 연극계 극단 연계 사전 간담회 1회, 자문회의 1회 진행
 - 2) 부산연극분야 자치규약 워크숍 개발 및 워크북 제작(7월)
 - 사전조사 및 연구를 통한 부산연극계 자치규약 워크숍 개발 및 제작
 - 주요 내용 ①연극계 내의 차별과 폭력에 대한 정의 ②시간별, 장소별, 주제별 규약 조항 ③성폭력 발생시 대응 매뉴얼 ④참여자들의 약속과 다짐 등

3) 부산연극분야 자치규약 제작을 위한 찾아가는 워크숍 진행(8~9월)

-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라 소규모 찾아가는 또는 비대면 워크숍 약 8회

4) 결과도출 및 규약 완성본 제작 (10월, 진행중)

- 극단별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하여 부산연극계 자치규약 표준 제작
- 제작된 규약 완성본은 선언행사(11. 25.)을 통해 배포 예정

5) 부산연극분야 자치규약 선언행사 (11월 개최 예정)

- 부산연극인들의 의견의 수렴하여 완성된 부산연극계 규약을 함께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선언행사, 11월 마지막 주 아시아 문화다양성 포럼 주간 연계 연극살롱(낭독극 형식)으로 진행 예정
- 오프닝 퍼포먼스 ⇨ 낭독극 ⇨ 프로젝트 진행과정 브리핑 ⇨ 부산연극계 관객과의 대화

● 기대효과

- 평등한 문화를 만드는 예술인들의 공동체적 책임과 해결 방법 마련.
-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치규약을 제작에 참여하고, 이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공동체의 변화마련

● 향후계획

-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된 자치규약 극단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 적용 독려
- 2021' 문화다양성 성평등- 부산무용계 CTS 제작 추진 예정

미투에서 성평등까지

부산 문화예술계의 과제와 전망